

마르크스, 인간을 위해 사유하고 실천한 삶

마르크스 평전에 드러난 인간 마르크스의 모습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해 싸운 혁명가였고, 기존의 수많은 사상을 재결합하고 수정함으로 독창적인 사상을 만들어낸 사상가였으며, 늘 가난에 시달리면서 친구들에게 손을 벌린 나약한 인간이기도 했다. 사회주의 붕괴와 냉전 종식 이후에도 마르크스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은 그가 인간의 삶을 위해 사유하고 실천했다는 점이다.



지난 세기 말 영국공영방송이 세계인을 상대로 지난 1천년 동안 최고의 사상가를 물었을 때 1위로 뽑힌 사람은 마르크스였다. 냉전 시대 마르크스는 세계인구의 반을 그의 자장 안에 뒀다. 동구권이 무너지고 사회주의의 아성이던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마르크스 사상의 유효기간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마르크스를 기억해내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사상가여서일까? 인류에게 불을 훑쳐다준 프로메테우스처럼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 해방의 이념을 안겨다준 혁명가여서일까? 아니면 단지 인간 마르크스에 대한 호기심 어린 관심 때문일까?

그러나 마르크스의 삶은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로만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동안 국내에 소개된 마르크스 평전들 속에서 마르크스는 혁명가나 사상가, 자연인 어느 한 부분의 모습으로만 그려져 왔다. 평전을 집필하는 지은이의 상황과 관심, 사상적 배경에 따라 각각의 시각이 존재하지만, 이 책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마르크스의 삶 역시 다른 모든 학자나 위인들의 삶처럼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혁명가·조직가로 활발히 활동해 구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마르크스·레닌 연구소가 펴낸 《마르크스》(김대웅 외, 두레)에서 마르크스는,

그의 동지이자 친구였던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함께 '세계 노동 계급의 추앙받는 스승, 그들의 대의명분을 위해 싸운 위대한 전사, 혁명적 노동계급 운동의 이론가이자 조직가'로 표현되고 있다. 이 책은 마르크스의 사회활동과 그의 저작을 분석하면서 마르크스의 삶을 그려나간다.

1844년 9월 파리에서 마르크스는 엥겔스를 처음으로 만난다. 이때부터 평생을 두고 이어지는 그들의 공동투쟁이 시작됐다. 1845년 프로이센정부의 요청으로 파리에서도 추방된 마르크스는 2월 브뤼셀로 이주했으며 프로이센 국적을 포기했다. 그해 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비밀선전단체인 <공산주의자동맹>에 가입했고, 1847년 11월 런던에서 개최된 이 동맹의 제2차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의 위임을 받아 그는 <공산당선언>을 작성해 1848년 2월 발표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로 끝을 맺는 이 문헌을 가리켜 엥겔스는 "모든 사회주의 저작 중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글로서 시베리아로부터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수백만 노동자들이 공히 받아들인 강령"이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1848년 베를린에서 '3월혁명'이 일어나자 마르크스는 쾰른으로 돌아가 노동계급의 의사를 대변하는 유일한 신문인 《신라인신문(Neue Rheinische Zeitung)》을 창간하고 주필을 지냈다. 그러나 혁명이 실패하자 마르크스는 재판에 회부됐다가 파리로 망명한다. 1849년 6월 13일 시위 후 프랑스에서도 추방당해 마르크스는 런던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영국에 건너가서도 그는 집필과 조직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말년에 건강을 해치면서도 《자본론》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1883년 3월 14일 런던의 자택에서 엥겔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폐종양으로 숨을 거뒀다.

헤겔 등에 영향 받았지만 새로운 세계관 제시해 마르크스·레닌연구소가 펴낸 《마르크스》가 혁명가이자 조직가로서 마르크스를 조명해 준 책이라면, 라트비아 출신의 사회 사상가 이사야 벌린이 쓴 《칼 마르크스—그의 생애와 사

대》(안규남, 미다스북스)는 사상가로서 마르크스를 조명한다. 벌린이 그려놓은 마르크스는 이론가이자 지식인의 모습이다. “그는 평생 동안 대중의 이해관계를 연구했지만 대중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본능적으로 피했다”고 적고 있다. 벌린은 마르크스 이론이 독창적인 것은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존의 견해를 수정하고 재결합함으로써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었거나 형식화되지도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마르크스가 추구한 것은 새로움이 아니라 진리였다. 다른 사람들의 저서에서 진리를 발견하면 그는 자신이 종합한 이론 속에 그것을 결합하려 애썼다.”

벌린은 이 책에서 마르크스에 영향을 줬던 사상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것들과의 영향관계에서 마르크스 사상을 분석한다. 마르크스의 청년시절을 지배했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헤겔이었다. 청년 마르크스는 가치 있는 헤겔의 방법으로 무장하되, 현실과 동떨어진 헤겔의 관념을, 경험적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대상을 가리키는 기호로 대체시켰다. 마르크스의 청년 시절에는 헤겔뿐 아니라 볼테르, 라이프니츠, 포이에르바하 등도 놓여 있다. 그뿐 아니라 생시몽, 푸르동 같은 당대의 사상가들도 주변에서 마르크스와 삼투압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당대 사상가들 가운데 마르크스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엥겔스였다. 마르크스에게 엥겔스는 헌신적인 친구이자 지적 동지였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모든 지적 자양분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그것에 대해 건강한 판단과 지적 활력, 쾌활함을 마르크스에게 제공했다고 벌린은 적고 있다.

벌린은 이 책에서 마르크스의 개인적인 생활을 매우 간략하게 처리하거나 생각한다. 한 개인으로서 마르크스는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다. 청소년기와 말년을 제외하고는 늘 가난에 시달리면서 평생의 동지인 엥겔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곤 했다. 그의 세 자녀가 기아와 질병으로 무참하게 죽어나가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벌린은 사상가 마르크스를 이해하는 데 마르크스의 사생활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천성적으로 강인하고 비타협적인 마르크스가 그의 사상을 세우는 데는 이처럼 불행한 개인사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간을 위해 살다 간 인간 마르크스

이사가 벌린의 책에 비하면 영국의 칼럼니스트이자 저술가인 프랜시스 윈이 쓴 《마르크스 평전》(정영목, 푸른숲)은 집요할 정도로 마르크스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있다. 이 책에서 마르크스는 술과 담배를 즐기고 농담을 좋아한 낙천가면서 생활인으로서 무능하기 짝이 없었던 가장, 가정부와 관계를 맺어 아내를 배반했던 남편, 돈 몇 푼을 얻기 위해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구차한 편지를 썼던 구멍판 신사, 자식 셋을 질병 속에 죽여가게 했던 가난한 아버지로 그려진다.

1850년대 마르크스는 《뉴욕 데일리 트리뷴》의 유럽 통신원으로 일하면서 1년에 2백파운드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그러나 부르주아의 생활습관을 버리지 못한 탓에 늘 가난하게 살면서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다. 어느 날 엥겔스에게 12파운드를 꾸달라고 편지를 하는데 “나는 곤경에 처해 있네. 딸아이의 약값도 치를 수 없는 형편이야”라고 쓰고는 곧 다음 문장에서 아내와 딸들, 그리고 가정부가 두 달 동안 별장으로 휴가를 떠날 예정이라고 적고 있기도 하다.

마르크스는 귀족 출신인 아내를 항상 자랑스러워했다. 그래서 ‘에니 마르크스 부인. 옛날 이름 : 베스트팔렌 여남작’이라고 새긴 아내의 명함을 갖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여주곤 했다. 그는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아내가 자신 때문에 고달픈 운명을 감수해야 하는 것에 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은이는 이처럼 약점 많고 모순투성이인 허약한 인간의 구체적 인 삶이야말로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은 그가 무엇보다 인간의 삶을 위해 살다 간 한 인간이라는 점이다. 마르크스가 혁명가로서 사상가로서 혹은 자연인으로서 겪은 삶 역시 그것을 증명한다.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그 위세를 떨치고 있어도 그 속에서 우리가 인간을 위한 삶의 문제를 생각하고자 한다면, 마르크스는 우리에게 한 인간이 그것을 위해 어떻게 고민하고 사유하고 실천했는지 서슴없이 보여줄 것이다. —김장근 기자

출판계에 ‘마르크스주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산당선언〉은 “하나의 유령이 지금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최근 우리 출판계에는 ‘마르크스주의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평전이 속속 출간되고 인터넷 서점 인물분야 베스트셀러 목록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3월 《체 게바라 평전》(장 코르미에, 김미선, 실천문학사)이 출간되면서 시작했다. 이 책은 약 6만부 이상 팔려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체 게바라 열풍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최근 들어서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평전 출간이 활발해졌다. 《트로츠키의 반(反)파시즘 투쟁》(레온 트로츠키, 박성수, 풀무질), 트로츠키의 자서전 《나의 생애》(레온 트로츠키, 박광순, 범우사), 《호치민 평전》(찰스 펜, 김기태, 자인), 로자 룩셈부르크의 서간집과 평전을 함께 묶은 《자유로운 영혼 로자 룩셈부르크》(로자 룩셈부르크, 오영희, 예담), 《로자 룩셈부르크의 생애와 사상》(파울 프릴리히, 최민영, 책갈피), 《로자 룩셈부르크》(토니 클리프, 조호래, 북막스), 《레닌》(로버트 서비스, 정승현, 시학사) 등이 그 책들이다. 또한 마르크스의 박사학위 논문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고병권, 그린비) 등 마르크스의 저작들도 발간되고 있다.